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 84호

| | | |
|-----|--|--|
| I | <p>국내·외 소비자 맞춤형 '호접난(팔레놉시스)' 품종 평가</p> | |
| II | <p>달콤함에 단단함까지 '수출 유망 딸기의 매력'</p> | |
| III | <p>「수출식물의 검역요령」 개정 알림</p> | |
| IV | <p>「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개정 알림</p> | |

농수산물 수출 Zoom In 84호 2021. 3. 31(금)


‘21.2.28까지 농수산물 수출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한 15.4억\$

부류별

| 신선 | 가공 | 수산 |
|--|--|---|
|   11.0% 233.4백만불 |   14.0% 977.2백만불 |   2.5% 325.3백만불 |
| + 인삼류, 김치, 딸기, 포도 = 가금육류, 버섯류, 파프리카, 배 | + 라면, 소스류, 음료 = 연초류, 소주 | + 김, 참치 = 굴, 전복, 바지락 |

국가별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반영

| | | |
|--|---|--|
|   미국 240.1백만불(18.2%) | 그린랜드 연계 신선판촉 | ▲ 라면(56.3%), 김치(108.8%) ▼ 비스킷(△7.2%), 배(△35.2%) |
|   중국 232.7백만불(20.5%) | ole 매장 연계 한국농식품 판촉 O2O 춘보생센 연계 한국농식품 판촉 춘절 연계 징동 한국관 온라인 판촉 | ▲ 김(130.0%), 인삼(54.2%) ▼ 생우유(△5.7%), 맥주(△93.8%) |
|   신남방 (ASEAN + 인도) 336.2백만불(10.5%) | 하노이 Vinmart 등 연계 과자류 판촉 싱가포르 콜드 연계 딸기 판촉 | ▲ 음료(25.5%), 인삼(64.3%) ▼ 김(△24.4%), 닭고기(△52.5%) |
|   홍콩 65.9백만불(5.9%) | 홍콩 웰컴 연계 딸기 판촉 | ▲ 포도(84.6%), 딸기(56.6%), ▼ 맥주(△24.5%), 인삼(△38.3%) |
| ▲ 참치(7.5%), 라면(6.0%) ▼ 음료(△22.5%), 버섯(△22.4%) | 체코 약국체인 연계 인삼류 판촉 |  EU (영국 포함) 84.4백만불(△10.6%)  |
| ▲ 김치(92.9%), 김(33.6%) ▼ 파프리카(△6.1%), 소주(△18.9%) | 돈키호테 연계 종합판촉 |  271.6백만불(△9.2%)  |

☆  : 15%이상 /  : 5~15% /  : 0~5% /  : 0~△5% /  : △5~△15% /  : △15%이하

품목별 이슈

* 실적 : '21.1.1 ~ 2.28



- 딸기

- ◇ 주력 수출시장인 홍콩, 싱가포르 수출 호조와 더불어 매향·금실 품종을 중심으로 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국가 소비자에게 인기 증가

26.1백만불(26.1%)

- ▶ 주요 수출국 : 신남방(15.3백만불, 14.6%), 홍콩(9.4, 56.6%), 싱가포르(6.4, 17.4%), 태국(3.6, 4.5%), 베트남(2.7, 14.9%)

- 포도

- ◇ 저온 유통체계 구축과 철저한 품질·안전성 관리 등을 통해 프리미엄 과일로 인식되면서 중국과 베트남에서 명절(춘제, 뗏) 선물 수요 증가 수출 호조



6.9백만불(46.3%)

- ▶ 주요 수출국 : 신남방(2.6백만불, 75.2%), 중국(2.2, 4.7%), 홍콩(1.9, 84.6%), 베트남(1.5, 58.5%)



“ 김 ”

- ◇ 식재료용 김밥김, 스낵김, 조미김의 인기에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등 인기 지속

92.1백만불(26.9%)

- ▶ 주요 수출국 : 중국(25.4백만불, 130.0%), 미국(17.4, 1.6%), 일본(13.0, 33.6%), 태국(6.5, △44.8), EU(5.6, 21.5%)

☆ 자세한 동향 관련 내용은 aT kati(www.kati.net) > 수출 동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은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aT 수출기획부 061-931-0816,7)

농진청 이슈



국내·외 소비자 맞춤형 '호접난(팔레놉시스)' 품종 평가

농촌진흥청은 국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호접난(팔레놉시스) 소비 흐름을 반영해 내수용으로 개발한 소형 팔레놉시스 '러블리엔젤', '아리아'와 수출용으로 새로 개발한 '원교 F2-48' 등 다양한 크기의 품종을 2월 17일, 전문평가단에게 선보였다.

팔레놉시스 '러블리엔젤'은 입술 꽃잎이 일반 꽃잎처럼 크며 꽃대 발생률이 좋고 장거리 수송도 쉬워 국내 소비뿐 아니라 미국 수출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아리아'는 흰색 바탕에 중앙 부분이 선명한 분홍빛을 띠는 소형종이다. 잎의 길이가 짧아 재배·관리가 쉽고, 꽃대가 잘 올라오며 꽃수가 많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새로 개발한 '원교 F2-48'은 화사한 분홍색을 띠며, 꽃 한 송이 크기가 9~10cm에 이르는 대형 종이다. 하나의 꽃대에 꽃이 8~9송이 정도 달리며, 꽃 배열도 우수해 미국 수출이 기대되는 계통이다.

농촌진흥청은 해외시장에서 인정받는 우수 품종을 개발함으로써 국산 난 품종 보급률을 지난해 20.2%에서 2021년에는 21%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호접난(러블리엔젤)



호접난(아리아)



호접난(원교 F2-44)



호접난(원교 F2-48)

달콤함에 단단함까지 '수출 유망 딸기의 매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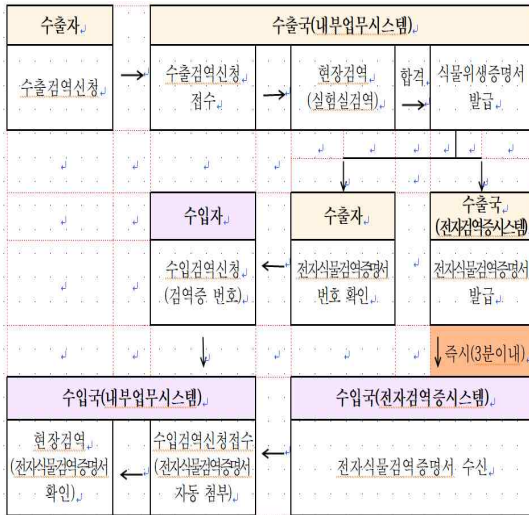
농촌진흥청은 국내산 딸기 새 품종의 수확 후 품질 특성을 분석하고, 수출 가능성을 제시했다. 딸기는 홍콩과 싱가포르 등에서 수출량이 해마다 늘고 있는 대표 수출 품목이다.

농촌진흥청은 수출을 이끌 새 품종을 발굴하고자 '아리향', '금실', '킹스베리', '비타베리', '죽향' 등 한국산 딸기 7품종의 수확 후 품질 특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단맛은 '금실', '죽향', '메리퀸'이 당도 10Brix 이상으로 우수했다. 신맛은 7품종이 비슷한 수준이었고, 단단함을 의미하는 경도는 '아리향'이 4.0N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비타민 C는 '죽향', '금실', '비타베리'가, 안토시아닌 함량은 '금실', '메리퀸'이 풍부했다. 딸기는 물러짐과 곰팡이 등으로 수출을 할 때는 일주일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신선도 기술을 투입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이 자체 개발한 '수출 딸기 신선도 유지 일관 체계화 기술'을 홍콩 선박 수출용 '아리향', '금실'에 적용한 결과, 경도는 30%, 당도는 20% 정도 높게 유지돼 수입국으로부터 품질·신선도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 농진청 이슈 문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4

식물검역 이슈



<전자식물검역증 발급 절차
(자료=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수출식물의 검역요령」 개정 알림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가공된 수출식물의 검역 절차 간소화 및 식물검역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류검역 대상품목을 289품목으로 확대 지정하였다. 또한, 전자식물검역증(e-Phyto) 상용화에 대비하고 수출농산물의 신속한 통관 지원 및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전자식물검역증을 교환 운영할 수 있는 처리절차를 신설하는 등 수출검역 제도를 개정하여 수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개정 알림



<호접란 개화주(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17년 12월 미국측의 사전 승인된 온실에서 재배 및 재배지검역을 실시한 재식된 한국산 난의 미국 수출을 허용하였다. 이 후 현재 6개소가 미국 수출용 온실로 승인되어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하여 포장용기의 표시사항 중 품목의 일반적 특성을 재배매체가 부착된 살아 있는 난(Live orchid plants in growing media)으로 명시화하였다. 검역본부는 동 사항을 관련 수출업체 등에 신속하게 홍보하고 한국산 난의 미국 시장 수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 지원하였다.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